

나눌수록 건강해지는 이야기

보건체계

결핵없는 세상을 바라 보며 묵묵히 행동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한번 마주 잡습니다.
작은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세상에 외칩니다.

Mar+Apr 2023 VOL.697



대한결핵협회는
본부 산하 결핵연구원, 글로벌협력원, 12개 지부 및 8개 복십자의원을 통해
결핵의 예방과 발견, 검사 및 치료, 연구 등 국내외 결핵퇴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knta.or.kr



대한결핵협회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CONTENTS

보건세계

통권 제697호(비매품)
등록 서초 마123호
창간 1950년 3월
발행인 신민석
편집인 최종현
기획 홍보기획팀
발행처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뚝로6길 57
홈페이지 www.knta.or.kr
전화 02-2085-0058
진행·제작 유니크플러스
 02-2140-1114

〈보건세계〉는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크리스마스 쉼 모금을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한결핵협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KNTA, 깊이보기

04 Focus 1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 불명예를 넘어,
결핵퇴치 선도국가로!

08 Focus 2

‘결’론은 예방, ‘핵’심은 검진!

10 Oh! 70주년!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결핵협회 검사사업”이 존재합니다.



14 KNTA 돋보기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 다시 세계를 무대로!

18 당신 곁에 KNTA 1

대한결핵협회에서 뻗어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손길

20 당신 곁에 KNTA 2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 2022 크리스마스 쉼 모금 현황

22 KNTA와 함께

‘증상이 없는’ 결핵 감염자를 찾아라

26 KNTA 탐구생활

몸속에 숨어있는 결핵 찾기 : 잠복결핵감염 검사법

28 아주 특별한 하루

아주 특별한 베이킹 팀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우?
- 결핵연구원 연구개발 2팀

● 세상, 멀리보기

32 나만의 주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의 병을 잡다
- 대구경북지부 부설 복십자의원 박지연 원장님

36 동네, 한 바퀴

대구, 더 웅골진 매일 다 빛나는 내일



40 즐거운 만남

어쩌다 발견한 보석 “도전은 내 원동력”
배우 이재욱



44 Theme People

인간이 상처 입힌 해양동물 보전에 기여하고파
이영란 우리나라 1호 해양동물 수의사

● 소식, 모아보기

48 KNTA뉴스

50 후원자명단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 불명예를 넘어, 결핵퇴치 선도국가로!

결핵퇴치(STOP-TB) 협력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결핵은 고대 피라미드의 미라 화석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위협해온 감염병으로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은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는 총 20,383명으로,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9.8명입니다. 결핵사망률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8명으로 38개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발생률은 OECD 평균의 4배 이상, 사망률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결핵환자 발생이 정점이었던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체계적인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민간의 지속적인 결핵퇴치 노력을 통해 39,557명에 달하던 전체 환자 수를 54% 넘게 감소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더해진다면 머지않아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경로와 기전이 코로나와 유사한 결핵에도 많은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같은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강화에 힘입어 지난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환자가 16.3% 급감하는 등 국내 결핵의 감소세는 확인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각 국가의 보건역량이 코로나 관리에 집중되면서 결핵에 투입되던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결핵퇴치목표(End-TB)의 달성 시기도 5~8년 정도 늦춰지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국제사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핵 국제기구인 'STOP-TB Partnership'은 향후 5년간 결핵환자 수가 3~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국제보건학술지인 'Lancet Global Health'에서는 향후 5년간 결핵 사망자 수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결핵퇴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결핵퇴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세계결핵퇴치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감염병 관리 선도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결핵분야에 있어서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우수한 결핵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결핵퇴치목표(End-TB)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지원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께 결핵퇴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으로도 결핵퇴치 선도국가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지난해 9월 'STOP-TB Partnership 코리아'의 새로운 협력위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소외와 단절’을 야기하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연대와 협력’입니다. 전 세계적 중대질병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체가 바로 ‘STOP-TB Partnership’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STOP-TB Partnership 코리아’는 결핵퇴치에 뜻을 함께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 협력하며, 국내외 결핵퇴치 협력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보건 및 방역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결핵퇴치 협력 강화 또한 ‘STOP-TB Partnership 코리아’가 해야 할 큰 역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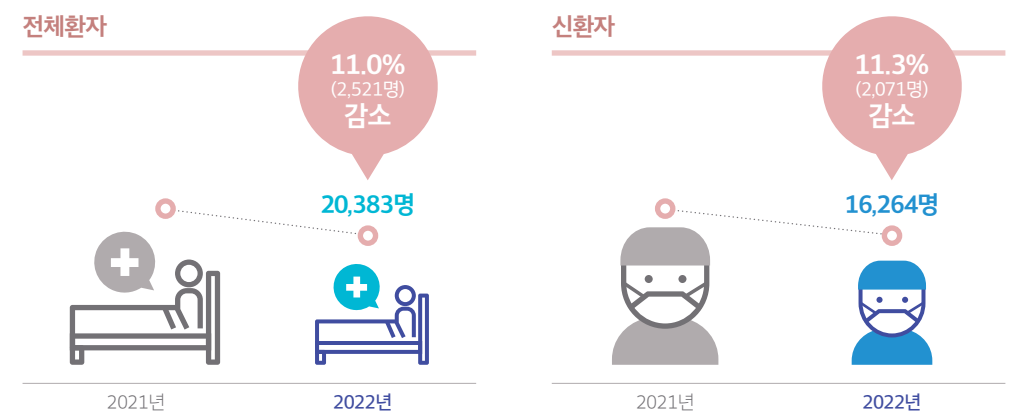
향후, ‘STOP-TB Partnership 코리아’가 국내 국가결핵관리목표와 세계결핵퇴치목표(End-TB) 달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국회 및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결핵퇴치 파트너십(STOP-TB Partnership)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여성 감염병 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건강 증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3월 24일은 국제항결핵및폐질환연맹(IUATLD)이 제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 STOP-TB Partnership이 주관하는 ‘세계결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및 퇴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해당일을 법정기념일인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는 2주 이상 기침, 감기 증상이 지속될 경우 결핵검사를 꼭 받으시고, 개인 방역과 건강한 면역 유지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준수하셔서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핵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보건문제로서 우리가 더욱 앞장서야 할 과제를 함께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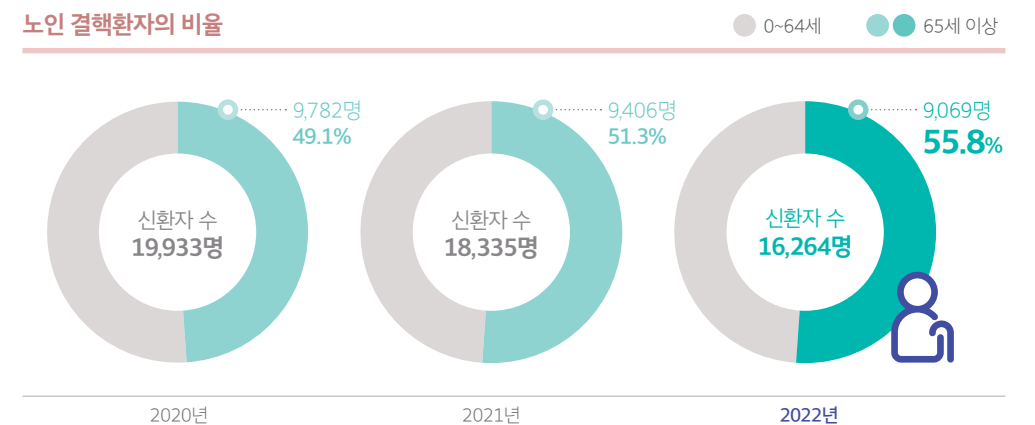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결핵 현황

지난 3월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질병관리청은 ‘2022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발표했다. 그 연보에 따르면, 국내 결핵환자 및 결핵발생률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전체 결핵환자 수는 20,383명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했다. 한 해 동안 신고된 결핵신(新)환자 수 역시 11.3% 감소한 16,264명이다.



단, 국내 결핵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어르신 결핵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50%를 넘어섰다.



‘결’론은 예방, ‘핵’심은 검진! 결핵은 인종, 계층, 나이,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3월 20일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호흡기 감염병 위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선부른 결정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호흡기 감염병 퇴치의 기회로 활용한 것은 자명하다. 이는 실제 통계자료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힘입어 3월 24일 전국에서 '제 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이 열렸다.

글 이수림_본부 홍보기획팀

국가, 국민 그리고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만들어 간 변화

지난 수년간 세계보건기구(WHO)는 한정된 의료 자원이 코로나19 퇴치에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결핵과 같은 기존 감염병의 확산을 경고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2021년 세계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OECD 가입국 결핵환자 역시 3.5%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힘입어 8%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대한결핵협회가 존재한다. 지난 3월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비록 결핵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펼쳐진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자, '결핵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독일의 세균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던 결핵의 발병원인인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는 1982년,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IUATLD)이



▲ 결핵예방의 날 비대면 캠페인



전라북도지부



▲ 질병관리청 기관표창



▲ 거꾸로하트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

기념일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씻고자 2011년 '결핵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 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해 언제, 어디서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결핵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결핵예방의 날 하루 전 23일에는 STOP-TB 파트너십 한국사무국이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몽골, 필리핀, 중국, 미얀마 등 12개 국가별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자리한 외국인 참여자들에게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안내했으며, 국가별 결핵퇴치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호흡기 감염병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는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온 외국인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4일 당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협회의 12개 시·도 지부 및 관할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결핵예방 캠페인이 펼쳐졌다. 특히 전라남도 7개 시·군 300여 명이 참석하고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한 결핵예방의 날 행사에서는 전라남도과 대한결핵협회, 국립목포병원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향후 지역사회 호흡기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결핵검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거꾸로하트 그림공모전 수상작 전시, 무료 결핵검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일대에서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해 결핵예방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시민과 함께한 결핵 퀴즈, 축하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결핵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결핵은 인종, 계층, 나이,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나 하나의 노력만으로 혹은 협회만의 역량으로 완전한 퇴치는 불가능하다. 국가, 국민이 함께 예방에 동참할 때 비로소 모두가 건강하게 숨 쉬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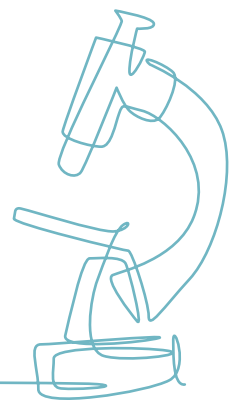


대한결핵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결핵퇴치 및 호흡기 감염병 극복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Oh! 70주년!” 코너를 신설했다. “Oh! 70주년!” 코너에서는 검진, 검사, 진료, 모금,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힘 써온 대한결핵협회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결핵협회 검사사업”이 존재합니다.

글 고영재_본부 홍보기획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염병 퇴치의 첫걸음은 정확하고 신속한 진원(震源) 관리일 것이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결핵 역시 마찬가지로서, 그 진원은 결핵균을 배출하는 활동성 폐결핵환자다. 흉부 X-선 검진을 통해 결핵유소견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현장에서 객담을 채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핵 진단, 치료 처방 선정, 치료 성패 결정 등은 모두 정확한 결핵균 검사 결과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1962년 세계보건기구의 기술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입안될 당시, 결핵관리의 핵심인 환자 발견과 치료는 결핵균 검사에 기초하여 실시되어야 함이 강조되며 중앙결핵검사가 출범했다. 오늘날 누적 객담검사 건수 15,343,819건(2022년 기준)에 달하는 대한결핵협회 결핵균 검사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시발점, 중앙결핵검사소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양질의 검사 정도 유지는 감염병 관리의 성공 열쇠다. 1962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입안과 함께 협회 본부에 설치된 중앙결핵검사소는 단순한 결핵균 검사에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에 투입될 결핵관리요원 객담도말검사 교육, 보건소 요원 기술지도감독 등 인적 인프라 양성까지 도맡았다. 특히 1964년에는 협회 중앙결핵검사소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결핵검사가 추가 설치되며 비로소 ‘보건소 → 시·도 검사소 → 중앙결핵검사소’로 이어지는 결핵균 검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중앙결핵검사소는 1970년 협회 결핵연구원 발족과 함께 결핵연구원 소속 세균부로 편입되었으며 시·도 결핵검사소 역시 협회 본부 산하 전국 시·도 지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비록 별도 조직으로 존재하던 중앙결핵검사소 및 시·도 결핵검사소가 각각 결핵연구원 및 지부 소속 부서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보건소로부터 의뢰되는 객담 결핵균 검사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보건소 의뢰 결핵균 검사 실적은 본부 산하 12개 지부에서만 8만 8천여 건에 달한다. 협회가 보유한 검사 노하우와 인적·물적 자원은 보건소 객담 의뢰뿐 아니라 협회 복십자의원과 일반 병원에서 의뢰되는 도말검사를 비롯하여 배양검사, 항결핵제 감수성검사, 균동정검사 등에도 투입되었다.

‘국제표준검사소 지정’으로 인정받은 검사 역량

결핵검사로 시작된 결핵균 검사사업은 결핵연구원 세균부를 거치며 차츰 정확도와 전문성을 높여갔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결핵균 양성 사례 중 협회가 추가로 발견한 양성이 1973년에는 11.3%에 불과했으나 1983년 30.8%, 1993년 47.5%, 2003년 56.0%로 증가했다. 물론, 일선 보건소에서 결핵균 검사 시 활용하는 도말검사에 비해 결핵균을 증식시킨 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배양검사가 보다 확실한 결핵균 유무 판별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보건소 도말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결핵균 양성 사례가 협회의 배양검사에서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협회의 검사 영역이 단순히 결핵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양성이나 음성이나의 판별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협회는 전국 각지의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도말양성 객담을 대상으로 양질의 항결핵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역량을 인정받아 1993년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결핵 및 폐질병 퇴치연맹(IUATLD,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로부터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국제표준검사로 지정되었다.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국가결핵관리사업,
그 중심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2009년 보건소로부터 접촉자 검체를 위탁받으며 시작된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역량은 지난 2017년 하루 5천 건에 달하는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결핵연구원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 설립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협회는 2017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52.5만 명 중 50%에 육박하는 25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했으며, 이 중 결핵균에 감염된 비율이 2.1%에 달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같은 해 이뤄진 교정시설 검진에서는 잠복결핵 양성률이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교직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근무자 검진에서도 양성률이 2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는 이후 국가결핵관리사업 수립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강화로 이어졌다. 협회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수행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결과가

**결핵과 함께한 70년을
뒤로하고 결핵을 넘어설
70년의 시작**



수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 앞에서 우리는 미래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은 확인할 수 있었다. 협회 역시 2020년 시작된 팬데믹 앞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중 일부를 코로나19 대응 수단으로 사용했다. 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 검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24시간 운영되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센터를 구축했으며, 복직자직원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재개원·전환하며 채취, 수거·운송, 검사, 치료로 이어지는 원스톱 의료체인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 춘천, 수원,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복직자직원이 코로나19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국민의 호흡기 감염병 관리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협회가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호흡기 감염병 전반에서 보건의료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2023년 하반기 착공될 결핵연구원 연구동이 존재한다. 지상 2층 900여 평 규모로 신축될 연구동은 결핵균을 비롯한 다양한 고위험 균과 바이러스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BSL(BioSafety Level) 3 및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 2009



» 2020



일선 보건의료 현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정책 수립의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 당시 일본,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전국 단위 실태조사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결핵유병률을 통계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전국결핵실태조사'에서 그랬듯이 잠복결핵감염 검진에서도 협회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회는 분부 산하 12개 지부 및 6개 복직자직원을 기반으로, 의료인과 임상병리사로 구성된 시·도별 잠복결핵감염 검진팀을 운영하며 보건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 숙련된 검사인력과 최적화된 설비 운용이 강점인 협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는 지난해 누적 검사 175만 건을 달성하며 그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받았다.

협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보건의료 민간단체로 첫선을 보인 지도 어느덧 70년이 흘렀다. 창립 당시 130만 명에 달했던 국내 결핵환자는 오늘날 2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 단계(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 당 10명 미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한해 149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수년 내 결핵을 퇴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협회의 헌신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사(史)를 돌아보면 굵이굵이마다 협회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협회의 특징점이 집중된 보건의료 분야와 협회에 요구되는 보건의료 민간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 그 접점에 호흡기 감염병 검사사업이 존재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맞이한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 다시 세계를 무대로!

지난 호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세계 결핵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국제적 역할을
조명해 보자.

글 장승준 본부
커뮤니케이션본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평가

- 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방역의 우수성을 <추적(trace)-검사(test)-치료(treat)>로 요약해 보도했다.
 - ② 미국 일간지 The New York Times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을 한국과 비교해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심층 보도하였다.
 - ③ 2020년 12월 2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한국의 감염병 진단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선정하였다.
 - ④ 2021년 「2021 국제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는 전 세계 195개국 중 한국을 9위로 평가했다.
- *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핵위협방지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과 존스홉킨스대학이 산정
- 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2022년 4월 기준, 한국의 GDP가 1조 8,046억 8,000만 달러로 세계 12위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결핵이 다시 급증될 것이라는 WHO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시점으로 결핵퇴치에 또다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결핵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감염병 대응 선도국가로서 '결핵퇴치'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중요 분야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결핵협회는 단 한 명의 결핵환자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사회적 부대 요인 때문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결핵환자들의 '목소리 대변자(Voice of the Voiceless)'가 되어 결핵환자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역사를 이룬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결핵협회는 본부 산하 글로벌협력원 및 결핵연구원, 기타 국내외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국제사업을 추진해 왔다.

1) ① Trace(추적), ② Test(검사),
③ Treat(치료)

캄보디아

2019. 12.
~ 2021. 06.

11억원



코로나19 가운데 진행된 캄보디아 시엠립주민 대상 결핵검진사업

캄보디아 시엠립주 주민을 대상으로 초소형·저선량 이동식 엑스선(X-ray) 기기를 도입한 이동검진 사업을 추진했다.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검사하는 환자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결을 목적으로 하며, 캄보디아 여성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젠더 평등과 연결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보건국에 전달하였다.

동티모르

2020. 06.
~ 2024. 06.

30억원



(좌) 국가결핵표준검사실 준공식 / (우) 결핵진단 및 검사 교육

2016년 '국가결핵표준검사실'준공 지원에 이어, 2020년부터는 지역사회의 결핵 진단 기반형성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단위로 코호트 리뷰시스템과 환자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결핵환자의 성공적 치료와 국가결핵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3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우간다

2021. 08.
~ 2022. 05.

0.6억원



(좌)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수료식 / (우) 이종욱 펠로우십 결핵연구원(KIT) 방문

2019년 <이종욱 펠로우십> 질병(결핵) 연구 전문가과정 연수에 이어서, 우간다 국립결핵실험실 인력을 초청하여 국가결핵관리 최신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했다. 교육내용에는 결핵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WHO 약제감수성지침 및 결핵치료를 위한 신약 사용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협력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협력 사업



(좌, 상) 가정병원(보건소) 관계자들 / (우, 상) 잠복결핵검사 TST(tuberculin skin test) 피부반응검사
(좌, 하) 가정병원(보건소) 내 문진대기 / (우, 하) 15세 이하 엑스선(X-ray) 촬영 후 결과확인 중(검진버스 안)

2022. 04.
~ 2023. 12.

8억 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내 결핵 발생률이 높은 6개 구역²⁾을 선정해 검진버스와 이동식 엑스선 검사를 통한 접촉자 검진(contact investigation) 사업과 보건의로 관계자 대상 잠복결핵 검사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몽골지원사업과 더불어, 몽골보건부 및 국가감염병관리센터(National Center for Communicable Diseases, NCCD)와 함께 “아시아에서의 결핵퇴치 방안 모색(Seeking Ways to Eliminate TB in Asia)”을 주제로 「제5차 아시아 결핵퇴치협력 포럼」을 개최했고, 10여 개국 약 200여 명의 보건의로 관계자들이 함께 국가별 결핵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바양걸, 바양주르흐, 성긴하이르항, 수흐바타르, 항울, 칭겔티구(區) 등 6개 구역

코리안 드림을 응원하다

STOP-TB Partnership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마산병원의 협력 사업



(좌, 상) 우즈베키스탄 송출기관 해외노동이주청(AELM) 회의 / (우, 상) 키르기스스탄 검진기관 MedCenter.KG 환경점검
(좌, 하) 라오스 검진기관 Ruam Pheat Clinic 관계자 회의 / (우, 하) 태국 검진기관 Paolo Hospital 관계자 회의

2)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스리랑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대상국 16개국²⁾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엑스선(X-ray) 검사, 이중 판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 유소견자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입국 후 발견된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이 이중 판독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태국 등과 시스템 도입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이 사업을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 전체에 실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직 결핵이 심각하데 굳이 해외사업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받을 때가 있는데, 그 대답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말했던 “빈곤, 불의 그리고 광범위한 불평등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쉴 수 없다.”에서 찾을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지구적 불평등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저소득국에서도 국가적 결핵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자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보건의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제공되는 의료 혜택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국제협력지원사업은 협력국가의 발전은 물론, 시사각각 다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힘있는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교활동이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수혜국에 전해질 뿐 아니라, 이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여국이 되어 또 다른 수혜국을 원조함으로써 인류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곧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국제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Global Medical Governance’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보건 거버넌스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한결핵협회는 우리나라가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과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선도적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한다. 결핵은 기원전 화석에서도 발견되는, 인류와 수천 년을 함께해 온 질병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결핵 청정국도 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이 지금도 결핵과 힘겹게 싸우는 결핵 고위험국가도 여전히 존재한다. 송고한 생명을 살리고 ‘END TB 2035’라는 국제사회의 결핵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결핵퇴치 프로그램이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로 중심의 결핵퇴치를 통해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인류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주어진 시간은 단 4분! 대한결핵협회에서 뻘어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손길

심장, 혈액을 몸 전체로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 단 4분만 심장이 멈추어도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뇌는 영구적인 손상,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무엇보다 즉각적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협회 임직원은 서초 소방서 홍보교육팀을 초빙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그 현장을 찾아가 보자.

글 이수림_본부 홍보기획팀 사진 정준택



단 4분,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이다.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멈춘 심장이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배워 응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다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도 급성심장 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1년 5%에 그쳤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021년 28.8%로 5배 이상 높아졌다. 생존율 또한 11.6%로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 5.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오늘의 교육은 보건의로 최일선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이러한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서로가 서로의 응급 대원이 될 것이다. 교육은 심폐소생술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부터 직접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마네킨에 시연해보는 실습 순으로 이어졌다.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깨우고(1GO), 알리고(2GO), 누르고(3GO), 사용하고(4GO)**를 기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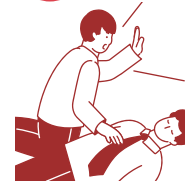
심폐소생술의 4GO 단계

1GO 깨우고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단, 쓰러지는 과정에서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두드리거나 피부를 꼬집는 정도가 적당하다. 이후 발끝부터 머리까지 눈으로 호흡 여부를 확인하자. 심정지 상황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구급 대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GO 알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움을 청할 사람을 손으로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외양을 표현하고(예 : 주황색 옷 입고 머리를 묶은 여성분),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해야 한다.



3GO 누르고



심장 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GO 사용하고



필요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다.

응급처치 시행 단계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는 전문가와의 실습을 통해 주의사항을 학습하는 것이 좋다. 인근 소방서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니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면 어떨까.

전 세계로 뻘어나가는 나눔의 손길

지난 여름 협회가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KNTA 사랑나눔 봉사단'을 창단하여 오늘의 심폐소생 교육을 열기까지,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지도 어느덧 10개월에 접어들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의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올림포드 해변정화, 청소년 척추옆굽음증 예방을 위한 독서대 지원, 에너지 빈곤층 대상 연탄나눔봉사, 장애인 농장 일손 돕기 등 다양한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적정혈액보유량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의 헌혈 동참으로 첫 사회공헌을 시작했으며 몽골, 캄보디아 등 해외 의료봉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결핵협회의 내일의 행보에 많은 기대 바란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 2022 크리스마스 씬 모금 현황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국내외 결핵퇴치를 이끌어온 크리스마스 씬, 2022년에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크리스마스 씬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에게 향했던 뜨거운 함성이 크리스마스 씬에 닿았을까? 지금부터 2022 크리스마스 씬 모금 현황을 살펴보자.

글 이민석_본부 모금개발팀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던 2022년 크리스마스 씬 모금

2022년 크리스마스 씬은 기존 우표 형태의 씬은 물론, 특히 월드컵이라는 국제 이슈에 맞게 응원타올과 응원배지도 선보였다. 여기에 그린씬(키링)과 엽서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더해 '모두가 부담 없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씬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씬 모바일카드(card.knta.or.kr)'도 무료 제공하였다. 오프라인에서 크리스마스 씬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사 <팝업기부스토어>도 운영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씬을 소개하고, 결핵퇴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집중모금 기간(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21억 2천여만 원이 모금되었고, <기부스토어 (https://loveseal.knta.or.kr/christmas)> 등을 통한 연중 상시모금의 모금액은 3억 원이었다. 따라서 2022년 크리스마스 씬 총 모금실적은 24억 2천여만 원으로 목표액 30억 원의 약 80.7%를 달성했다. 실로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가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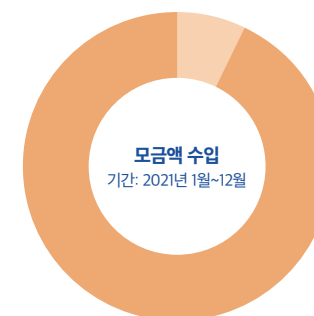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씬은 일반 사람들에게 결핵퇴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상징이자, 결핵 청정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크리스마스 씬 모금, 이렇게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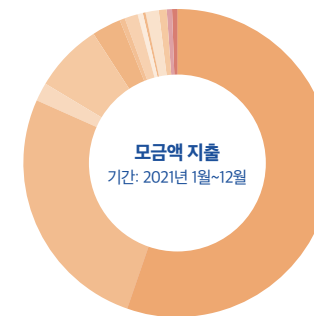
결핵예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씬 모금은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아진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 2022 크리스마스 씬' 모금은 결핵퇴치기금로써 2023년 취약계층 결핵검진,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환자 복약관리 지원사업, 결핵예방 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을 실천한 많은 기부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처럼 결핵 역시 긴 터널을 빠져나갈 그 날을 위해, 앞으로도 대한결핵협회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크리스마스 씬 모금액은 이렇게 사용했어요~



기타 기부금	181,457,800원	6.97%
크리스마스 씬 모금액	2,421,068,624원	93.03%
총계	2,602,526,424원	



씬 모금사업	홍보사업	1,563,137,152원	55.02%
	취약계층결핵검진	762,995,590원	26.86%
	지원사업	40,120,550원	1.41%
	조사연구	210,341,995원	7.40%
	씬 모금사업	89,292,040원	3.14%
기타 기부금 사업	취약계층 결핵환자 캠페인	18,500,000원	0.65%
	이주민 결핵환자 실터 운영	43,620,000원	1.54%
	온라인 모금 지원사업	13,595,550원	0.48%
	북한이탈주민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210,150원	0.01%
	모금비	8,709,300원	0.31%
	대국민 결핵홍보를 위한 "Lung Tree Care Campaign"	40,000,000원	1.41%
	노인복약지원사업	20,192,620원	0.71%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94,170원	0.71%
	결핵 연구자 지원사업	10,000,000원	0.35%
총계		2,840,809,117원	



‘증상이 없는’ 결핵균 감염자를 찾아라 : 잠복결핵감염 검진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결핵균이 있으나,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가결핵관리사업 전문 수행기관으로서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속하고 있다.

글 김은정, 본부 홍보기획팀

KNTA와 함께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한결핵협회는 2017년부터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결핵예방법 및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국내 결핵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시행되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일의 국가결핵관리사업 전문 수행기관인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본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우리 협회의 누적 검사 수는 174만여 건에 달한다.(2022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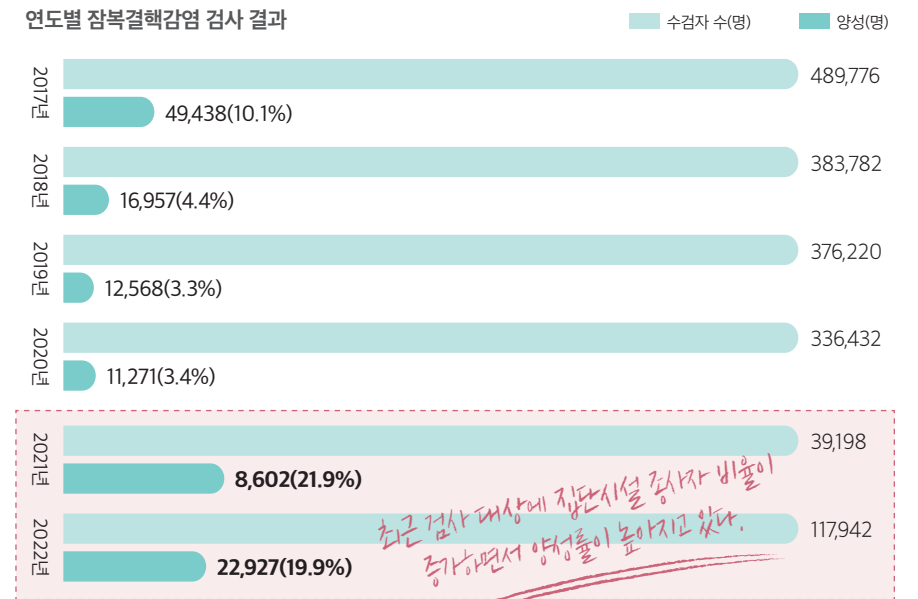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잠복결핵감염 양성률

대한결핵협회는 국가잠복결핵감염 검사의 50% 이상을 수행해왔으며, **현재까지 수검자 174여 만명 중에서 12만 1천여 명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를 발견했다.** 최근 검사 대상에 집단시설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우리나라 집단시설의 결핵발생률과 잠복결핵감염자율

2021년 신고된 결핵환자 22,904명 중 집단시설에 소속된 사례는 7,161건(약 1/3)이며, 그중 3,999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들과 접촉한 90,073명 중에서 85명이 결핵신환자로 추가되었다. 이를 토대로 추정된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 비율은 접촉자 10만 명당 94.4명으로, 우리나라 결핵발생률*보다 2.6배가 높다. **접촉자 중 42,799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결과 25.7%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7명으로 2021년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연도별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 현황 및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현황

연도	발생 건수	접촉자	검사자	감염자(율)
2017	9,206건	141,164명	60,104명	10,884명(18.1%)
2018	8,395건	122,913명	50,334명	9,263명(18.4%)
2019	8,045건	130,843명	67,259명	12,873명(19.1%)
2020	7,234건	109,723명	53,033명	11,494명(21.7%)
2021	7,161건	90,073명	42,799명	11,009명(25.7%)

출처 : 질병관리청 <2021년 결핵 역학조사 결과>

체계적 잠복결핵감염 검진

잠복결핵감염과 국가결핵관리사업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체내 면역반응으로 인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장은 증상과 감염력이 없지만, 고령 등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비감염자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폐에서 발병하여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까지 낮추기 위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으며, 대한결핵협회가 그 현장의 일선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 협회는 교직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제3차 결핵관리종합 계획>에 따라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결핵협회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스템

대한결핵협회는 '본부-결핵연구원-12개 시도 지부'를 잇는 체계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① QR 시스템 : 검체 접수-등록-관리 과정을 오류 없이 처리
- ② Single Item Hot Line :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 관리 교육을 이수한 수송 요원이 검체를 6시간 이내에 배양검사실로 수송하는 시스템
- ③ LIS(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시스템 : 사무적 오류 방지를 위해 검사 장비와 연동하는 잠복결핵검진 전용 전산 시스템
- ④ 교차 확인 시스템 : 검사결과 통보 오류 방지



잠복결핵감염과 예방치료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화학치료의 예방 효과 82%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7~2018년 시행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수검자 103.4만 명을 평균 2년 이상 추적 연구한 끝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의 치료 여부에 따른 결핵발생률 격차와 예방치료의 효과'에 대해 <국가 잠복결핵 코호트의 활동성 결핵발생 현황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한결핵협회의 2023년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연계 지원

위 연구에서 양성자 161,460명 중에 치료를 시작한 사람은 35.2%에 불과했다. 그리고 치료완료자는 전체 양성자 중 29.2%뿐이다. 잠복결핵감염 자체가 증상과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높은 예방효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확대하여 교직원 및 돌봄시설 종사자 등 약 45만여 명을 검사할 예정이며, 약 9만여 명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진-검사-치료-관리 과정의 수행과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잠복결핵 양성자의 치료율과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잡자의원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배치, 잠복결핵감염 홍보와 양성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허련 팀장

정부의 결핵 정책 방향이 발견-치료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바뀌면서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결핵연구원의 결핵진단팀은 하루 24시간—주야간 3교대로 검사를 시행하며, 일일 최대 5,000건의 검사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단검사는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법의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몸속에 숨어있는 결핵 찾기: 잠복결핵감염 검사법

잠복결핵
감염이
뭐죠?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장은 증상과 감염력이 없더라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아직 발병하지
않은 결핵을
어떻게
검사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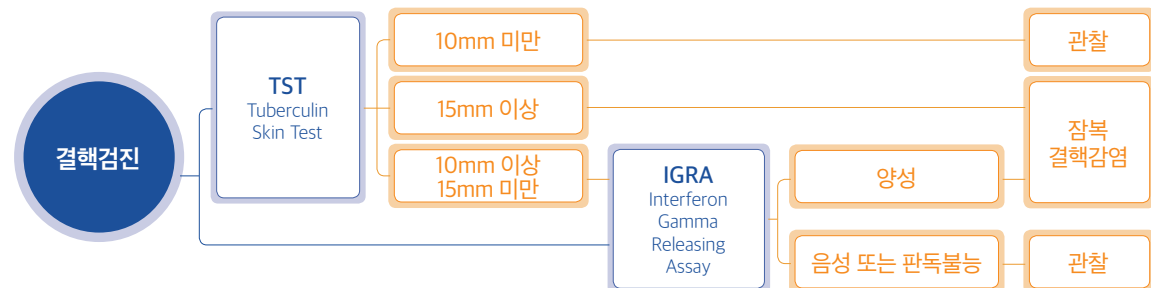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확인되더라도, 적절한 예방치료를
받으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침

최근 개정된 결핵진료지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진단에 2가지 검사법—전통적인 투베르쿨린 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능 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TST 단독, TST/IGRA 2단계 검사, IGRA 단독 검사 중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

2. 대한결핵협회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스템

대한결핵협회는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법

(1) 투베르쿨린 검사(T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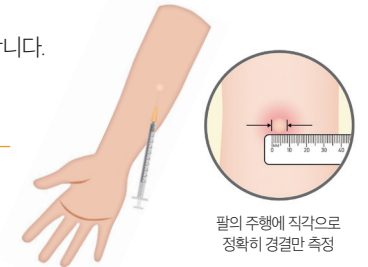
결핵균에 의한 감염 증상 중에서 tuberculin(투베르쿨린)을 접종한 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과민반응'을 이용한 검사법

- ▶ 결핵균의 배양액에서 정제한 항원*—Purified Protein Derivative(PPD)를 피내 주입
- *항원: 생체 속에 침입하여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단백질 물질

(2) 인터페론감마 분비능 검사(IGRA)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속 T세포*가 '결핵균-특이항원'과 다시 만나면 IFN-γ (interferon-γ)를 분비하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법

- ▶ 피검자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 속 IFN-γ의 농도를 측정
- *T세포: 항원 특이적인 적응 면역(후천 면역)을 주관하는 세포



팔의 주행에 직각으로
정확히 경결만 측정

※ 우리나라는 WHO와 국제결핵연맹이 표준 tuberculin으로 채택한 'tuberculin RT23'을 항원*으로 사용합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렇게 합니다!

(1) 투베르쿨린 검사(TST)

- 검사 현장에 의료진이 함께 합니다.
- 교육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PPD 주사와 판독을 시행합니다.



(2) 인터페론감마 분비능 검사(IGRA)

- 검사 현장에 의료진이 함께 합니다.
- 검사과정의 오류 방지를 위한 검체의 접수-등록-관리 과정의 전산화 'Single Item Hot Line' 운송 (QR 시스템, LIS 시스템, 교차 확인 시스템 등) *24페이지 참조

▶ 검진 안내 및 사전접수



▶ 채혈



정확한 검사를 위해
37지 튜브를 사용해요!

▶ 잠복결핵감염 검사



피검자의
분리된 혈장

아주 특별한 베이킹 팀 대결! 케이크 vs 에그타르트 과연 승자는 누구~~우?

결핵연구원 연구개발 2팀

향긋한 베이킹 향내와 차가운 연구실 내음 사이, 알록달록 오색의 제철 과일과 시그러운 흑백의 활자들 사이. 결핵균을 퇴치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개발 2팀'이 연구실 가운을 벗어 던졌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에이프런을 둘러 입은 8인의 사우들이 '베이킹 공방'으로 진격한 것이다. 과연 평소처럼 프로토콜에 따라 멋진 베이킹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연구개발 2팀의 좌충우돌 베이킹 체험기. 그 현장 속으로 급습해 보자.

글 박진아 사진 정준택 장소 호호베이킹클래스



길바속속 에그타르트 만들기

에그타르트는 2인 1조로 진행이 됐다. 1조는 황제익 팀장과 정다운 사원이 2조는 양정성 전임연구원과 이영진 사원이 맡게 되었다. 새하얀 탁자 위에 준비된 노란색 타르트 반죽을 밀대로 밀어 넓게 펼치고 은색의 원형 틀을 사용해 동글한 원 모양을 찍어내며 필링을 채워 넣을 그릇 역할을 할 도구를 만들어나갔다. 다들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구멍 나고 찢긴 반죽을 수선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드디어 원형의 도구를 마주한 에그타르트 팀의 얼굴에서 뿌듯함이 배어 나왔다.

“생각보다 참 어렵네요. 아내가 에그타르트를 참 좋아해서 맛있게 만들어 선물해 주고 싶은데, 예전에 마카오 유명 에그타르트 집에서 맛 보았던 것과 비슷한 맛이라도 나길 바라봅니다.”(황제익 팀장)
“와우. 애초가 메이킹 좋아요. 베이킹을 메이킹 하시는 능력 최고!”(양정성 전임연구원)
“라임이 참 좋네요. 베이킹과 메이킹.(웃음) 저는 그냥 완성이 목표입니다.”(정다운 사원)

오고 가는 대화는 잠시 뒤로하고 이제는 에그타르트의 핵심인

필링을 만들기 시작한 에그타르트 팀. 우유와 생크림 그리고 바닐라빈을 채워 넣은 냄비에 계란 노른자를 넣고 살살 저어가며 살짝 끓인 뒤 설탕을 섞은 계란과 함께 섞어 70도 정도까지 끓여야 하는데... **시작부터 우당탕탕! 휴대용 버너에 올린 냄비가 넘어질 뻔 한 걸 양정성 전임연구원이 재빠른 몸놀림으로 캐치!** 오고 가는 실수 속에 팀원들의 집중력과 결속력이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잘 끓인 필링에서 바닐라빈을 제거한 뒤 얼음물에 식혀주니 필링이 완성됐다. 이제 타르트 도구에 필링을 붓고 40분 가량 굽기만 하면 완성! 과연 완성품은 어떤 모습으로 에그타르트 팀의 손에 안기게 될까? 두근두근. 기다리는 시간마저 설렌다.

새콤달콤 딸기 케이크 만들기

케이크 팀은 총 4인의 사우들이 1인 1케이크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강민지 연구원을 비롯한 김다운, 서정미, 박유미 사원으로 구성된 여성파워 4인조 그룹은 제빵사의 지도에 따라 빨간 딸기 위에 다채로운 빛깔의 액상 초콜릿을 뿌려 모양을 낸 뒤 굽기를 기다렸다. “내 딸기가 제일 안 예쁜 것 같아!” 서로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품평회가 열리는 것도 잠시, 제빵사가 새빨간 카스테라 시트를 가져와 동그란 비닐 틀 안에 얇은 카스테라를 세워 틀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양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울실 거예요. 빵을 조금씩 살살 달래가면서 모양을 잡아줘야 해요”라는 제빵사의 말에 하나둘 카스테라 시트를 들고 도전을 이어가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똑같은 시트로 서로 다른 틀을 만들어내는 걸 보니 제각기 삶이 투영된 듯하여 신기하기도 하다. 이어 새하얀 치즈크림을 잔뜩 짜 넣은 뒤 빠알간 생딸기를 얹어 라즈베리 젤리를 뚜껑 삼아 잘 덮어주었다. 이제 마지막으 로 초콜릿을 입힌 딸기와 진주 모양 크런치를 치즈크림에 덮인 젤리 위에 올려 예쁘게 장식하면 끝! 과연 누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맛있을까?

“과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미적 감각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결과물이 엉망으로 나올까봐 사실 좀 두려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박유미 사원)

“맛아요. 미적인 감각이 필요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져야 할 텐데 말이죠. 에그타르트 만드는 거 보니까 케이크보다 더 쉬워 보여서 차라리 에그타르트 만들 걸 그랬나 후회되기도 해요. 그냥 틀에다가 계란물만 부으면 되잖아요.”(김다운 연구원)

오븐에서 에그타르트가 구워지길 기다리며 딸기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던 양정성 전임연구원이 이를 듣고 야심차게 한 마디 던진다.

“에그타르트를 무시하다니!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우리 팀전 한 번 하자!”(양정성 전임연구원)

잠시 후, '과연 잘할 수 있을까?'했던 기우에 일침이라도 놓은 듯, 구워져 나오는 케이크들은 한결같이 빼어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예쁘게 완성된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이들은 과연 오늘의 경험에 대해 어떤 스토리를 풀어내게 될까? 가족과 둘러앉아 파티 아닌 파티를 하게 될 특별한 밤을 상상해 본다.

함께 가는 길, 함께 찾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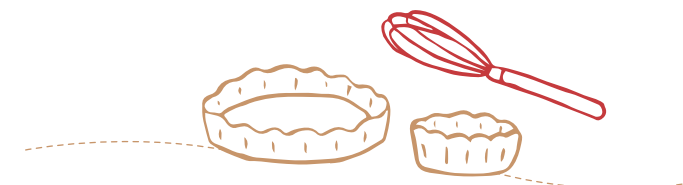
오후 내 서투른 손짓으로 케이크와 에그타르트를 만들었던 대한결핵협회 연구개발 2팀은 결핵연구원에서 한국항산균 자원센터를 운영하고, 결핵 진단·백신·치료제를 개발한다. 결핵연구의 최일선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다.

한국항산균자원센터는 국내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및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균주 자원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으로 약 4만여 이상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균주를 바탕으로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 정책까지 연구개발 분야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집단 지성이 모여야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개개인의 지식이 더해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발판이 되어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이끈다. 연구개발 2팀의 사우들은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간다. 즉, 결핵퇴치를 목적으

로 함께 힘을 모아 최상의 감염병을 극복, 정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

연구개발 2팀은 작년에 구성된 신생팀이다. 그러다 보니 특유의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함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이들을 보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결핵산업이 더 높은 반열에 올라서게 될 거라 느꼈다. 대한민국 결핵퇴치의 중추기관인 대한결핵협회에서 펼쳐질 연구개발2팀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MINI INTERVIEW



황제익 팀장

굉장히 색다르고 알찬 경험이었습니 다. 연구개발을 위해 저는 항상 팀원들을 뒤달하고 푸시하는 그런 역할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공유하니까 팀워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지 연구원

코로나 이후로 일 적인 거 외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팀원들과 함께 베이킹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양정성 전임연구원

베이킹을 하는 것은 실험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시와 순서를 따라가며 결과를 만든다는 점이 닮았을까요? 다음에도 이렇게 팀원들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박유미 사원

매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시간을 낼 수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팀원들이랑 함께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 더 돈독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힘도 충전된 것 같아요.

MINI INTERVIEW



서정미 사원

함께 베이킹을 체험을 하고 보니 마치 대학생 동기들끼리 MT 온 느낌이 들어서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정다운 사원

뿌듯하고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이 베이킹을 시작으로 팀원들과 다른 것도 함께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다운 사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무리 없이 간단하게 예쁜 케이크가 나온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이영진 사원

베이킹을 하며 대화와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복 십 자 의 원

우리 동네 만능 전문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의 병을 잡다**

글 박진아 사진 송태경 장소 대구경북지부 부설 복십자의원

대구경북지부 부설 복십자의원
박지연 원장님

뻗속까지 파고들던 한파가 봄기운에 밀려 아스라이 사라지고 겨우내 잠을 자던 꽃이 움트기 시작했다. 향기와 가루를 흩날리며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꽃의 기운은 봄의 정령으로서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하지만, 환절기 알레르기의 주범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기침을 하며 봄철 알레르기 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자주 목격되곤 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부설 복십자의원(이하 대구 복십자의원) 박지연 원장이 전하는 환절기 건강 관리법을 살펴보자. 더불어 작은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고혈압 관리법도 물었다.

Q.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알레르기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들었는데요.

봄철 유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을까요?

봄에는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합니다. 또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막힘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코막힘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 수면장애를 일으켜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땐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 때는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먼지농도를 잘 체크해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실내 청소만이라도 꼼꼼히 해 주시면 비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염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코점막의 붓기를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코 세척을 자주 해 주시는 게 좋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잘 챙겨 드시면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Q. 환절기 기침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기침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 별 이상 소견 없이 감기로 진단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등 기침에 의해 가려졌던 질환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복십자의원은 결핵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기침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결핵으로 확진받는 환자가 종종있습니다. 만일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고, 예전과 다른 기침 소리가 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쉽게 숨이 차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복십자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사 후 아무런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기침이 지속된다면 일상 속 위생 관리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목구멍 끝까지 다섯 번 이상 잘 헹구면 기침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위생을 관리하다보니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다들 한 번 실천해 보세요.

Q. 대구 복십자의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대구 복십자의원은 다른 1차 병원과 다르게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흉부 X-선 촬영으로 폐결핵 유소견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채담 부스에서 객담(가래) 채취를 진행합니다. 객담은 채취 즉시 복십자의원 2층에 마련된 검사실로 옮겨지고 도말, 배양, PCR(유전자증폭) 등 여러 검사법을 활용해 균의 특성 및 정확한 증상의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폐활량 측정을 통해 폐기능 정상 유무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결과 확인이 되면 증상의 경중을 살피고 치료를 시작해 반응을 확인해 나갑니다. 다만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건강검진 및 폐기능 검사를 받으신다면 혹시 모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구 복십자의원은 최근 고혈압 평가항목에서 1등급(양호)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고혈압 증상, 치료, 그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혈압은 대개 뚜렷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은 꼭 검사를 받아 보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가족력이 있거나 가슴의 답답함, 목덜미의 뻣근함, 눈이나 머리에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꼭 내원하셔서 고혈압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혈압은 발견된 이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정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면 심장, 뇌혈관, 눈혈관 등에 안좋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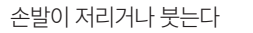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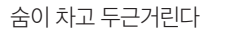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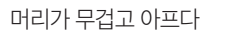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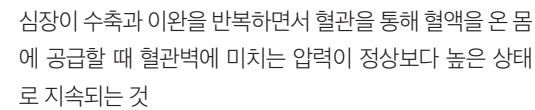


고혈압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유의해야 할 질환이 있을까요?

34

저를 비롯한 대구 복십자자원 의료진은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내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지역주민께 필요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앞장섬과 동시에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시설로 거듭나겠습니다.

대구 북십자위원이 알려주는 '고혈압'의 모든 것



금연 : 고혈압 약물치료의 효과 상승
절주 : 소주 2.5잔, 맥주 1.5병, 막걸리 2/3병,
와인 1.5잔
카페인 : 하루 2잔 이하

대구
더 옹골진 매일
다 빛나는 내일

글 박진아 사진 송태경

곧게 솟은 화색의 건물들 사이사이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긴 시간을 수용하고 상생하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도시 대구를 찾았다. 생동과 침묵이 적절히 어우러진 조금은 미묘한 이곳에서 우리는 다채로운 숨결이 담긴 공간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 보았다. 도시의 소리마저 휴식을 취하는 서봉사의 고즈넉한 평온을 가슴에 담고 한국의 문화유산이자 오랜 가르침인 유교의 명맥이 살아 숨 쉬는 대구 향교를 거쳐 1919년 처절하게 독립을 기원했던 3.1운동길과 근대 음악의 중심에서 서서 주옥같은 명곡을 남기고 떠난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까지 걸음걸음 이어진 하루 동안의 여행은 매일 한결같은 오늘이 아닌 조금은 특별한 내일을 기대하게 했다. 역사적인 터전을 상기하며 오늘이라는 화면 위에 내일을 채색해 가는 대구의 빛과 걸을 느껴보도록 하자.



봉사



봉사

도심 속 100년의 뿌리, 서봉사

대구 복십자위원을 나와 20여 분쯤 걸어가다 보면 이천동 99계단 벽화마을이 나온다. 새정비 작업에 들어간 벽화마을은 기존의 벽화들에 하얀 옷을 덧입힌 순백의 벽들이 99개의 계단을 따라 줄지어 서 있다. 그 길의 끝, 봄빛이 반짝이는 도심 속 고요한 절의 모습이 보인다. 웅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를 지나 서봉사 중앙으로 향하니 평화로운 침묵 위에 우뚝 솟은 엄숙한 서봉사의 얼굴이 푸르르다. 지붕 위에 걸터앉은 새하얀 구름과 마당 한가운데 신비로운 모습으로 줄기를 뻗어 올린 황금색의 나무가 서봉사 대웅보전의 모습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마음 한 켠에 몽글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망중한의 평온함이 이러할까. 도심 속 한가운데에서 일상의 속도를

잠재우고 마음의 번민을 어루만지는 작지만 웅골진 사찰
서봉사는 1920년 창건돼 100여 년의 시간이 자아내는 위엄을
품고 있다. 서봉사의 대웅보전은 통도사의 적멸보궁 대웅전을
축소하여 지은 것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향교

조선시대의 이념이 실린 대구 향교

서봉사를 나와 10여 분을 걸어가면 대구 향교가 나타난다. 향교는 제향과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儒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이다. 공자에 의해 창시되어 맹자, 순자, 한유, 주자, 왕양명 등으로 이어진 사상 체계인 유교는 현실 생활에서의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등의 도덕적 덕목을 중시했다. 이러한 유교사상은 삼국시대 이래로 수용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 말기에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조선시대에 이르러 국교로써 나라의 통치제도과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대구 향교는 조선 태조 7년 유교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는 지방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 이 공간은 매년 춘추로 석전대제를 봉헌하는 대성전과 학문을 강의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명륜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교에 들어 서자마자 보이는 백옥의 공자상은 1997년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칭다오시가 5주년을 기념하며 기증했다고 한다.

오늘의 바탕을 담은 근대문화골목

3.1운동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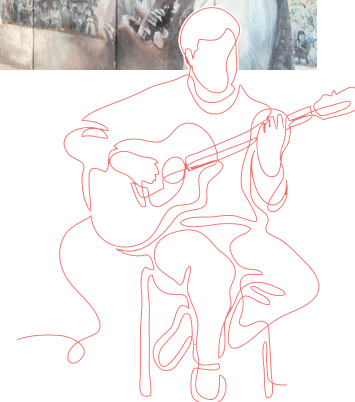
1919년 3월 1일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한 비폭력 독립운동인 '3.1독립만세운동'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했다. 일제의 수탈에 굴복당하던 시민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외친 그날의 함성은 가슴 깊은 염원이 담긴 한 멋진 '독립 선언'이었다. 그때 그 저항적인 열기가 이곳 3.1운동길에 기록으로 남아 생생했던 그날의 현장을 상기시키고 있다. 푸른 하늘 속에 펼쳐 이는 태극기의 힘찬 움직임처럼 3.1운동길 90계단 길 역시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며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높지 않은 계단을 올라 순식간에 다다른 언덕 위에 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았다. 일제의 수탈을 이겨내던 우리 선열들도 머지않은 날 다가올 독립의 날을 간절히 염원했을 것이다. 독립에 이르는 길이 그리 험하고 오래 걸릴 줄 어느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3.1운동길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3.1운동길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청라언덕에 당도한다. 이곳은 개화기 때 황무지였던 곳을 아담스와 존스라는 선교사가 구입해 병원과 학교를 지은 곳이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선교사의 저택은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 중이며, 내부로 들어가면 당시 사용됐던 각종 의학서적을 비롯해 허준의 동의보감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의료기기들을 관람할 수 있다.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은故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대구 중구청과 11팀의 작가들의 협업 하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 거리다. 입구를 중심으로 양 갈래 길로 나누어진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은 다양한 벽화와 노랫말 그리고 조각들이 골목을 끌어안고 있다. 거니는 길 어딘가에 자리한 스피커에서 쏟아져 내리는 김광석의 명곡들은 옛 추억을 상기시키고 감성을 간지럽히며 보는 맛과 듣는 맛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 인생 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잘 꾸며져 있으니 사진 촬영은 필수이다.

일어나

김광석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 봐도 소용 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 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어쩌다 발견한 보석

“도전은 내 원동력”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부터 판타지 〈환혼〉까지, 빛나는 성장사

이재욱

생애 처음 본 오디션에 합격해 드라마에
얼굴을 비쳤고, 무명 시절 없이 단숨에
주연 자리를 꿰찼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청춘스타'는 아니다. 이재욱의 빛나는
성장사에는 연기 욕심이 있다.
"작품을 놓치고 후회하고 싶지 않은"
배우의 욕심으로 데뷔 4년 동안 꽤 빼곡한
필모그래피를 완성했다.
두렵지만 도전하고 싶었고,
지금도 "소처럼 일하고 싶다"는
단단하고 열정 많은 배우,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재욱이다.

글 이미영 조이뉴스24 연예부 기자
사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tvN

이재욱의 4년, 도전의 연속이었다

2018년, 이재욱은 도전의 시작점에 섰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의 마르고 한을 시작으로 해마다 작품 하나는 꼭 했다. 신인 배우가 4년 내내 주연작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매번 다른 캐릭터에 도전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WWW>와 <어쩌다 발견한 하루>,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도도솔솔라라솔>로 로맨스 장인의 면모를 키워왔다면, 지난해 종영한 <환혼>으로 몸 쓰는 액션까지 소화 했다. 그는 대본을 보는 순간 여러모로 쉽지 않을 작품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해야 할까?" 고민도 컸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도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다. 그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다.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본에 따라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 심적인 기복에 지치기도 하고 밤낮 없는 촬영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고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니까 차치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도전에 대한 욕심뿐이더라고요. 한 뼘 더 성장한 연기력과 한결 더 색다른 캐릭터를 거머쥐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정한 연기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답니다."

긴 공백 없이 '열일'하는 이재욱의 원동력은 연기 욕심이다. 다른 배우에게 <환혼>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욕심도 있었다.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한 층 더 성장하고 싶었다.

"작품을 놓치고 나면 결국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게 들어 온 작품을 다른 배우가 하는 것을 보면 힘들어요. 물론 내 손을 떠나간 작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남기기 위해 언제부터인가 무리가 되더라도 저한테 온 작품을 할 수 있는 만큼 소화해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이런 욕심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겠죠."

1년 달린 <환혼>, "인생 캐릭터 만났다"

"감히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무려 1년을 달린 <환혼>이었다. 로맨스면 로맨스, 액션이면 액션,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이재욱이 완성한 '대체불가 장욱'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안고, 길었던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환혼>은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대호국을 배경으로,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주인공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판타지 로맨스다. 지난해 파트 1 <환혼>이 20부작으로 방영됐으며, 12월엔 파트 2 <환혼: 빛과 그림자>가 10부작으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1년 동안 촬영한 긴 프로젝트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욱이라는 캐릭터의 간극도 컸다. 부담감에 이재욱은 한 차례 거절했었다고 털어놨다.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거절했어요. 어렵기도 했고, 짐이 되지 않을까 했어요. 장욱이 워낙 입체적인 캐릭터라 문득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작품에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작품을 하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결과적으로도 배우 입장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재욱을 위한, 이재욱에 의한 <환혼>이었다. 극 중 장욱의 능청스럽고 장난기 어린 면모부터 속 깊고 진지한 면모,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흑화하는 모습까지, 180도 변화하는 다채로운 면모를 그려냈다. 파트1, 2를 촬영하며 이재욱이 가장 신경 쓴 것도 장욱의 캐릭터였다. 이재욱은 "다른 인물로 생각하고 구상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캐릭터에 흠뻑 빠져 일상의 실제 성격조차 바뀌었을 정도라고.

"장욱의 캐릭터가 파트 1에서는 잔망스러운 모습이었다면 파트 2는 무겁죠. 제 성격상 파트 1이 편했는데, 파트 2 때는 저도 감정적으로 변하고, 기복이 생겼어요. 세뇌 아닌 세뇌가

66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기복이 있고 힘들어 있지만 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니까요. 지금도 더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99

됐을까요.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를 쓰지 않고, 딱딱하고 무뎡뎡하게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

이재욱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무협 활극의 묘미인 화려한 장검 액션은 대부분 대역 없이 소화했다. 변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소화하기 위해 체중도 감량했다.

"외형적으로 살을 굉장히 많이 뺐어요. 장욱이 아픈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라 살이 포동포동하면 안 될 거로 생각했어요. 파트 1과 2 사이에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답니다. 단식 수준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20대 대표 배우? 더 많은 경험 쌓고파"

1998년생인 배우 이재욱은 올해 26세가 됐다. 그의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그간 이재욱이 맡았던 배역들이 본인의 나이대 이상의 성숙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리라. 20대 초반에 데뷔한 이후부터 정체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올라간 이재욱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는 30세의 설지환을 무리 없이 연기하고,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서는 28세 이장우를 묵직하게 소화해냈다. 어린 나이에도 연령대 제한 없이 세월을 오고 가는 이재욱은 그래서 배우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으며 주연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

"일단 '어덜트 페이스'로 낱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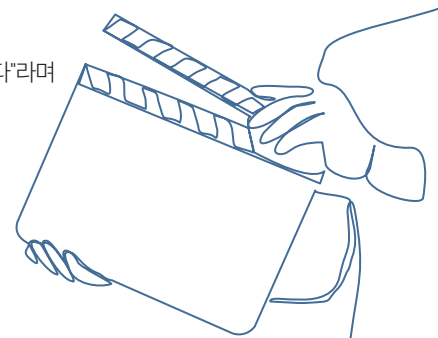
(웃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더 잘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고충도 많았지만,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려 하진 않아요"

배우 이재욱에게 장점을 물었다.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도, 187cm의 큰 키와 탄탄한 몸매, 혹은 날렵한 눈매일까. 돌아온 답은 '도전'이었다. 이재욱은 "잘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작품도 많다. 그는 "크리처물도 하고 싶고, 정통 사극도 하고 싶다"라고 했다. 20대 대표 배우로 꼽히는 이재욱은 차근차근 경험과 나이를 쌓아 올려 삶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역할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바람이라고 전했다.

"나이에 대한 무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품이나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무게나 경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나이를 먹어서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군대를 다녀와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꿈꾸는 나이는 서른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재욱은 "다음 작품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다"라며 2023년, 또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인간이 상처 입힌

해양동물 보전에 기여하고파

글 박은몽 사진 김상형

이영란

우리나라 1호 해양동물 수의사,
비영리법인 '플랜오션' 대표



사명감? 개척정신?

그런 거창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래가 사랑스럽고 그 고래 곁에 있는 수의사가
멋있어 보인다는 순수한 동기가 먼저였다.

그런데 해양동물 수의사로 일을 하다 보니 고래와 바다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해양동물 임상 수의사보다는 해양동물을 보전하는
일에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최근에는 해양동물 보전을 위한
비영리법인 '플랜오션'을 설립하여 보다 큰 행보를 시작했다.

수의사에서 '해양동물' 수의사로 새로운 변신

'이영란'이라는 사람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나라 1호 해양동물 수의사이자, 고래연구소, 롯데월드 아쿠아
리움, 세계자연기금(WWF) 한국 해양보전팀장 등을 거쳐 이
젠 해양동물 보전을 위한 시민단체 '플랜오션'의 창립자가 되
었으니 말이다. 그 활동의 스펙트럼이 만만치 않다. 대학을 졸
업한 후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평범한 수의사로 시작했지만 9
년을 지날 무렵 해양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졌
다. 오래전부터 동경해오던 바다로 가고 싶어졌는지 모른다.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일도 좋지만, 더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
었어요. 원래 바다를 좋아해서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고래와 함께 선 수의사의 모습을 보고 '바로
저거다' 싶었죠.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해양동물 수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때라 관련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국립수산물
학원 고래연구소였다. 이영란 대표는 급여는 적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언제나 즐겁고 의욕에 넘칠 수 있었다. 연
구소에서 생물학적/생태학적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해양동물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갔다.

"고래연구소와 부산아쿠아리움과 함께 남해 상괭이를 구조
하고 치료해서 방류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름을 붙여줬던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일도 좋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가슴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고래와
함께 선 수의사의 모습을 보고
'바로 저거다' 싶었죠.



상괭이들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바다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축탁 수의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이영란 대표는 해양동물 수의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국내 1호 해양동물 수의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임상 수의사에서 보전 수의사로, 새로운 도전

점차 그녀는 좀 더 큰 세상으로 눈을 돌렸다. 2017년 ‘미국 해양포유류 센터’에서 약 3개월간 해양포유류 구조 활동하면서 해양동물 ‘보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 활동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동물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인간이 자연에 잘못하고 있는 게 참 많

다는 것, 그리고 해양동물의 행복을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인간과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영란 대표는 해양동물이 살 수 있도록 바다 환경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말을 이어나갔다.

“해양동물 ‘보존’ 수의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해양동물이 살 수 없는 바다는 결국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해양동물 보존을 위한 활동은 즉 인간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만드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컨대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해양 쓰레기 줄이거나 해양보호구역 늘리기 등 여러 활동도 결국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려는 노력이지요.”

미국에서 돌아온 후 한국에서 해양동물 보전을 위한 새로운 일을 찾고, 바로 ‘WWF-Korea 한국세계자연기금’의 해양보전팀장에 도전했다. 바다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비록 연봉은 줄지만 해양동물 보전 분야를 이해할 좋은 기회였기에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다.

“언제나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편”이라며 “후회는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인간과 해양동물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수의사에서 해양동물 수의사로, 해양동물 임상 수의사에서 보전 수의사로 변신을 거듭해 온 이영란 대표의 지난 여정은 최근 비영리법인 ‘플랜오션’ 설립으로 정점을 찍었다. 플랜오션이란 “깨끗한 우리 바다를 위해 플랜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라는 의미이다.

“많은 분이 해양동물을 지키고 보전하는 데에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양동물 분야에 계신 분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도 응원해 주신 결과, 여섯 분의 이사님, 간사님 등을 모시고 새로운 항해의 닻을 힘차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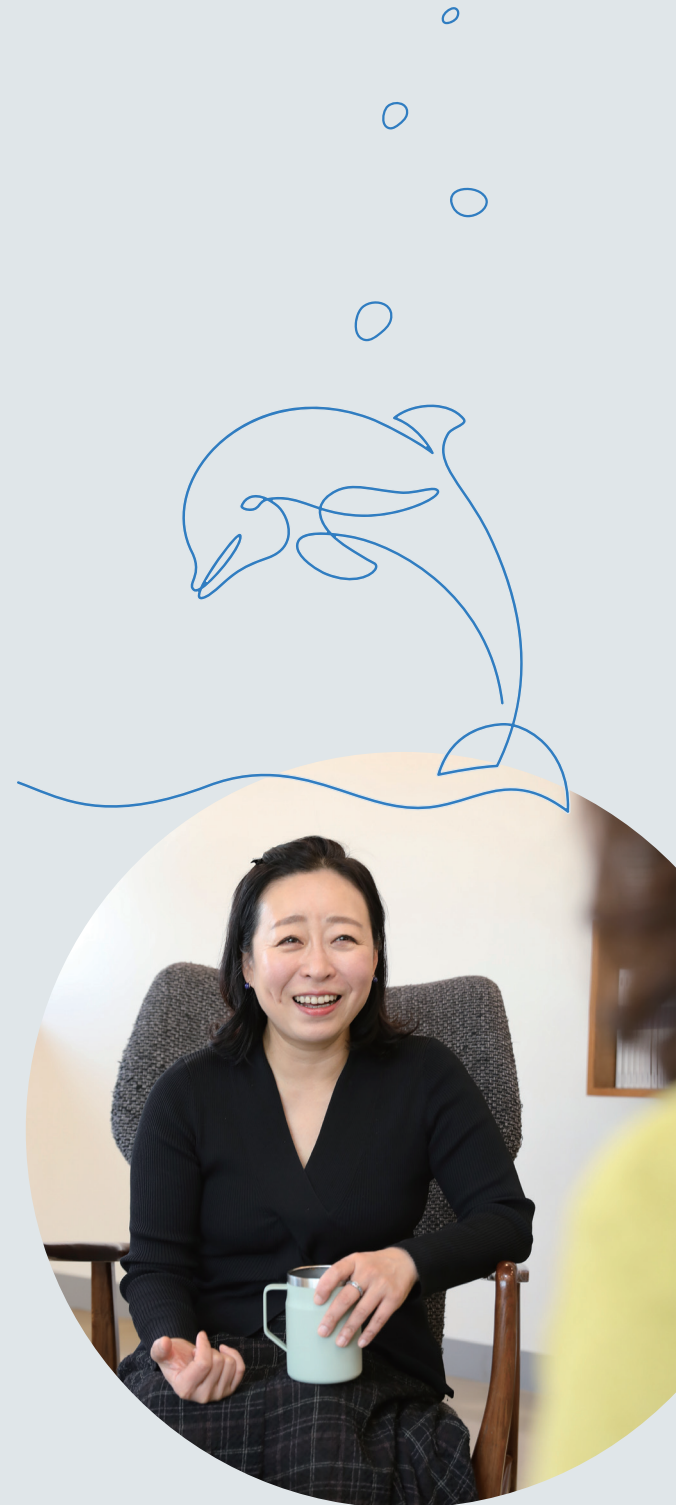
상괭이와 같은 멸종위기종도 살 수 있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고 싶어요.

99

이영란 대표는 우선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돌고래 ‘상괭이’ 보전에 나섰다. 한-중-일 공동 부검 연구로 죽은 상괭이의 사인을 밝힘으로써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포경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상괭이에서 시작한 해양동물 보전 활동은 앞으로 2가지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첫째는 ‘생태계 보전’이다. 상괭이와 같은 멸종위기종도 살 수 있게 생태계를 보존하며, 생물다양성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둘째는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업, 양식업) 확대’함으로써 인간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영란 대표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해양동물이 겪는 아픔이 너무 크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간과 해양동물의 공존을 위해 해양동물 부검 시스템 및 자료 구축에서부터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림) 저감 장치가 있는 어망 보급, 지속 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씬 없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결핵협회 주요 소식

3월



희망을 모아 건강한 숨결을 불어일으키는 '희망숨결' 모금브랜드 첫 공개

대한결핵협회가 새로운 모금브랜드 '희망숨결'을 공개했다. 협회는 크리스마스 썸 모금, 정기·일시 후원 등을 통해 결핵퇴치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결핵환자 발견·치료·관리 및 결핵퇴치 사업 등을 전개한다. 이러한 협회의 모금 사업이 '희망숨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희망숨결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 누군가에게 행복과 희망의 바람'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사람들의 희망의 숨결이 모여 두둥실 하늘로 떠올라 희망의 바람을 날리 퍼뜨리는 새 캐릭터 '숨이, 심이, 봄이'도 함께 선보였다. 자세한 모금 안내와 참여는 '크리스마스 썸 기부스토어(loveaseal.kn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월 16일



전라북도지부,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으로 어르신 결핵관리 돌파구 모색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지역의 결핵신(新)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63.2%에 달하며 인구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결핵사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라북도지부가 '대한결핵협회↔지자체↔보건소'로 이뤄진 지역 사회 맞춤형 결핵퇴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어르신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전라북도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건강고위험군 1만 명 검진을 목표로 하며, 검진뿐 아니라, 예방 홍보, 환자 치료, 복약 관리 등 결핵치료 과정의 전반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제적 결핵사업으로 가시적인 결핵관리 성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20일 ~ 5월 12일



결핵 스마트 관리 솔루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한결핵협회 STOP-TB 파트너십 코리아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함께 결핵 스마트 관리 솔루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정 감염병 2급인 결핵 퇴치를 위해 ICT 등 디지털 헬스 관련 신기술에 기반한 민관협력을 통해 스마트 결핵 발견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공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향후 결핵퇴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대상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STOP-TB 파트너십 홈페이지(stoptbk.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7일, 22일



서울특별시지부 신사동 주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및 취약계층 검진 실시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7일 신사동 주민센터와 신사동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협회는 분기별로 주민센터에 내방해 출장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검진은 22일 행해졌으며, 관내 의료수급권자 61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 및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흉부 X-선 영상을 촬영해 결핵,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판독할 수 있으며, 소변검사를 통해 요로감염, 비뇨기계, 뇌분비질환 등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 발견 시 인근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지부 부설 복지사무원에 내원하도록 연계하고 있다. 향후 의료수급권자 외 외국인,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검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3월 15일



부산 복지사무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지도

부산광역시지부 부설 복지사무원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3명에게 일반내과학 임상실습을 지도했다. 부산 복지사무원은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 외에도 내과, 소화기 등 일반진료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시경, 암 검진 등 건강검진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의원 상층에 검사실을 운영하여 의원에서 요청하는 검체뿐 아니라 관내 보건소에서 의뢰한 결핵, 코로나19 진단검사, 그 외 각종 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은 복지사무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진 실습, 결핵 검진 및 치료 전반사항 등에 대해 지도받았다.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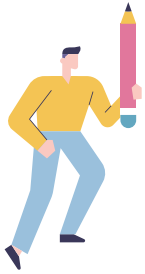


경기도지부, 대부도 주민에 직접 찾아가는 검진 편의성 제공

경기도지부는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및 행정 편의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경기도지부는 이동식 검진 버스를 활용해 매월 1회 대부도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현지에서 발급해주는 획기적인 의료 편의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결핵검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그동안 대부도 지역주민은 번거롭게 시내에 소재한 보건소까지 방문해야 했다. 이에 안산시와 경기도지부는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보건의료 전문기관인 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개선에 앞장선다.

이번 호에서 가장 흥미로운
코너는 무엇이었나요?
또는 아쉬웠던 점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다음 호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보내주실 때는 선물을 받으실 이름, 연락처를 정확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_____

연락처 _____

지난 호 독자엽서 당첨자

조OO(7498), 강OO(8007), 강OO(7724)

결핵예방의 날 기념 초성 퀴즈

Q 결핵퇴치기금 모금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새로운 모금 브랜드의 이름은?

Hint!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8p)

등 □ 人 ㄱ

정 답

대한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 후원

2023 Mar+Apr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받는 사람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67,

<보건세계> 담당자 앞

Tel. 02) 2085-0050~1 Fax. 02) 2633-7871

0 6 7 6 3



후원 기간
2023년 1월 ~ 2월까지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937,941원 NLCS JEJU

1,000,000원 윤세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00,000원 이흥기, 정문식

367,300원 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

200,000원

김유진, 김재원, 대창건기, 박준우, 오양섭,
윤분도, 윤재영, 이승구, 최승영

100,000원 김동규, 김원형, 이수산, 이철범

60,000원

김미숙, 김영미, 김영철, 김은배, 류미, 민미숙,
오영미, 옥명숙, 이희주, 장유지, 장희숙, 정덕기,
지노스티엔씨(주), 홍성표

45,370원 화성금곡초등학교

42,000원 최기제

40,000원

김강희, 김미경, 김은형, 김진만, 노덕원, 마대열,
목진규, 목진주, 박창호, 사공지현, 서민성,
손영옥, 심원우, 윤승기, 이기수, 이세형, 이윤정,
이재풍, 이지혜, 이태숙, 임영성, 장승준, 전미선,
정진훈, 진철현, 허련

30,000원 이명훈

24,000원 김은하

22,000원 권지혜, 김민정, 김성환

20,000원

강재석, 강현숙, 고영재, 공인식, 공정민, 권창환,
기호강, 김경숙, 김경태, 김덕희, 김동균, 김선태,
김성상, 김성숙, 김여진, 김영준, 김영호, 김용남,
김은하, 김인원, 김현현, 김지윤, 김진수, 김태향,
김현웅, 김현중, 김혜영, 남동호, 노광태, 노민아,
류기현, 류성원, 문세희, 박진규, 박덕성, 박상훈,
박선희, 박성권, 박연숙, 박용혁, 박은경, 박준경,
박준용, 박창희, 박태성, 박희동, 배선귀, 서인석,
서현정, 소원희, 손영필, 송용옥, 송유권, 송하만,
신경숙, 신승묵, 신태용, 심영일, 안현민, 엄태우,

여명훈, 오근영, 오대철, 유건호, 윤권용, 윤석현,
이건재, 이광수, 이남규, 이동엽, 이복재, 이원재,
이윤용, 이윤재, 이재용, 이정은, 이진숙, 이학승,
이희운, 이희찬, 임한혁, 장병철, 장영진, 장은영,
정수영, 정중채, 정해영, 정현진, 조명선, 조미경,
조연순, 조영수, 진광렬, 진인섭, 최경식, 최만호,
최명천, 최승만, 최인환, 최주만, 추상윤, 한태욱,
한혜미, 허목, 허정환, 현상협, 홍청기, 황민하

18,000원 김미영

14,000원 김영호, 이옥재

10,000원

강진범, 권선희, 권인혁, 기선아, 길연정, 김건호,
김경윤, 김덕영, 김미소, 김민초, 김서진, 김석중,
김성현, 김원중, 김윤수, 김은선, 김정국, 김정훈,
김주선, 김창기, 김철우, 김학겸, 김효준, 노윤래,
도영석, 박관호, 박문자, 박수정, 박은란, 박정심,
박정은, 서순미, 서원우, 송병옥, 송태화, 신진아,
안효민, 염재은, 오디연, 오선경, 유미라, 이기욱,
이기춘, 이동근, 이명희, 이민석, 이민형, 이애리,
이은영, 이정길, 이정미, 이주원, 이지나, 이철희,
이한웅, 이현재, 이현정, 장경진, 장민경, 장윤영,
장은성, 장지희, 전광현, 전태재, 전화심, 정승묵,
정익순, 정현성, 지원주, 차장환, 최기화, 최세웅,
최현영, 하경구, 하성란, 한연순, 허지행, 홍성태

6,000원

강용대, 고정민, 고희수, 권수원, 권정희, 김광명,
김길분, 김대희, 김동현, 김소라, 김소울, 김순재,
김승모, 김승중, 김양자, 김원래, 김윤선, 김현우,
김혜정, 남형준, 명효승, 문성우, 문용숙, 박영수,
박준규, 박대식, 변미정, 서영석, 송명근, 송종면,
신준수, 안선희, 오승철, 오피스, 우순남, 유미숙,
이계련, 이기봉, 이서현, 이지니, 이지현, 이현문,
이혜정, 임대순, 임유진, 장동현, 장희묵, 조원중,
조희정, 최우진, 최정실, 최태선, 탁점순, 한진환,
한희숙

5,000원 박소연

4,000원

강다근, 구명진, 권옥연, 김성기, 김소연, 김용주,
김정윤, 김지은, 김혜란, 김화선, 류충열, 문용주,
박선금, 백금주, 송재호, 오선영, 이봉성, 이충숙,
정민아, 정순애, 정의택, 조성민, 조원희, 조종여,
최병훈, 최선희, 최행숙, 최현정, 하상훈, 허서기

3,000원 김성수, 김호숙, 박민경

2,000원

강미경, 강성근, 강장한, 고재영, 곽도훈, 곽윤례,
권지인, 권효정, 김달진, 김민재, 김민조, 김선희,
김수정, 김수중, 김연숙, 김영빈, 김영진, 김윤기,
김점숙, 김점자, 김정미, 김태성, 김현성, 김현영,
김현옥, 김현지, 김혜랑, 김혜미, 김희숙, 류동구,
문병현, 문연실, 문정규, 박경찬, 박도혁, 박미숙,
박민수, 박병순, 박상연, 박영애, 박재완, 박지혜,
박찬향, 박철교, 박태호, 박혜정, 배병서, 배일권,
백경훈, 백명순, 백찬진, 서정민, 서창혁, 소유정,
송예은, 신두홍, 신선화, 신예섭, 신현주, 심윤희,
안이숙, 안형기, 양재만, 여의주, 유병수, 유춘,
유동환, 윤상희, 윤재경, 윤혜현, 이가람, 이기남,
이남희, 이복순, 이상용, 이상원, 이수림, 이승문,
이승현, 이언호, 이영민, 이예진, 이재경, 이재승,
이성수, 이정순, 이정철, 이정훈, 이종현, 이준혁,
이진우, 이진형, 이찬희, 이한솔, 이현주, 이호림,
임동민, 임영섭, 장미숙, 장병길, 장병호, 장순득,
장영주, 장정규, 장태용, 장현지, 정대성, 정대송,
정립, 정미장, 정미화, 정부덕, 정은미, 정은숙,
정정옥, 정한나, 정희례, 정희정, 조대열, 조용범,
조윤경, 조재성, 조준혁, 조진순, 차재욱, 채정효,
최안나, 최윤희, 최현준, 최희숙, 추경인, 하옥순,
하정희, 함윤지, 허병렬, 허순규, 허효진, 홍순영,
황수연

1,000원 라자람, 양지현, 이정희, 최성민

2023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대한결핵협회가 학생 결핵환자의
완치를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결핵환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되어 현재 결핵을 치료 중인 학생으로서, 과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
- ※ 신청 시 치료 종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사항

결핵완치 독려금 및 영양식 섭취 지원비 지급

- 법정차상위계층 : 1,000,000원
-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결핵 : 1,000,000원
- 법정차상위계층 외 : 500,000원

※ 대한결핵협회의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크리스마스 쉼 모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www.knta.or.kr) 혹은 거주 지역의 지부로 문의

대한결핵협회 본부 02-2085-0049	서울특별시지부 02-793-4893	부산광역시지부 051-611-3620	인천광역시지부 032-868-8921	경기도지부 031-245-8673	강원도지부 033-254-2056	충청북도지부 043-253-2266
대전세종충남지부 042-252-9860	전라북도지부 063-243-2724	광주전남지부 062-264-3103	대구경북지부 053-474-4713	울산경남지부 055-246-4223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4-742-1368	

※ †(복십자마크) 표시된 지부에는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진료를 비롯하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십자의원이 있습니다.

